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77호 (2015-09) 발행일 : 2015. 04. 06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우리나라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가계단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자산불평등이 소득보다 더 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순자산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45~54세에서 가장 높고 55~64세가 그 뒤를 이었음. 이는 은퇴 전후 시기에서 불평등이 많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향후에는 불평등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 생애주기적 속성을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남상호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1.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분포의 특징을 살펴봄
 - 가계의 복지 수준을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명목소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자산이 가계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가계자산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서의 위기란 실직이나 질병 또는 가족해체 등과 같이 다양한 경우를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분포의 특징을 살펴보고, 불평등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함
 - 2015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함
 - 생애주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에 대한 연령대별 분해를 수행하였음

2. 선행연구의 검토

- Sierminska and Smeeding(2005)에서는 자산분포 분석과 관련된 각종 정의, 균등화 척도, top-/bottom-coding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자산분포에 이용되는 균등화 척도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가계자산의 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완전하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음
 - ‘규모의 경제가 완전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계 자체가 분석의 단위임을 의미하며, 한 가계 당 한 개의 관찰치가 분석에 사용됨
 - 반면 균등화소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찰치가 분석에 사용됨
 - 이들의 분석방법은 Luxembourg Data Center와 OECD에서 이루어지는 자산분포 관련 연구에서의 표준으로 채택되었음
- Sierminska and Takhtamanova(2006)에서는 Luxembourg Wealth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과 소비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 캐나다, 이태리 그리고 핀란드를 대상으로 자산유형과 연령계층 그룹에 따라 자산효과(wealth effects)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주택자산의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가 다른 자산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음
 - 아울러 생애주기시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젊은 가구에서는 자산효과가 작은 것을 발견하였음
- Azpitarte(2008)는 2002년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조사한 Spanish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자산분포 현황과 자산불평등의 분해를 수행하였음
 - 자산이 소득보다 더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 주택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좀 더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자산불평등의 요인분해 결과에 의하면 금융자산은 자산불평등을 높이는 반면 주택자산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었음
 - 연령구성은 자산이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포함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반면, 주택 또는 사업체의 보유 등은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음
- 통상의 소득분배 분석에서 균등화된 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가계 구성원의 후생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균등화된 소득이란 가계소득을 균등화지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가구원수에 제공근 변환을 시킨 값이 가장 널리 쓰이는 균등화지수임
 - 가구원수의 제공근은 OECD에서 권장하는 균등화지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균등화 척도라는 의미는 아님
 - 가구원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국제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제한적인 의미임
 - 균등화된 소득을 이용하면 가구단위의 분배지표에 비하여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소득불평등도(inequality) · 빈곤(poverty) · 후생(welfare)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소득불평등도는 빈곤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임
 - 빈곤기준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또는 개인)의 비율로 나타나는 빈곤율은 분포의 아래 부분에만 관심을 두는 반면 불평등도는 분포의 중간과 윗부분에도 의미를 둠
 - 후생은 불평등도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데, 양자 모두 전체적인 분포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불평등도는 분포의 분산에 관심을 두지만 후생은 평균도 동시에 감안하기 때문임

3. 자료 및 분석결과

- 이하에서는 2015년 2월에 공개된 통계청의 가계금융 · 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산분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소득분포의 특징과 비교해 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우리의 분석단위는 가계 그 자체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가계자산 분포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소득분배 분석에서는 균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균등화된 개인에 대한 소득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는 가계가 자산을 이용함에 있어 규모에 대한 보수가 완전하다고 가정하였음
 - 또 여기서는 분포의 양 극단을 조정하기 위한 top-/bottom-coding은 하지 않음
 - 그 이유는 통계청 자료의 경우 자료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서 특이항을 조정할 필요가 크지 않고,
 - 최근 들어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의 값들은 레버리지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임
- 2014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는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한 전국규모의 조사임
 - 자산, 부채, 가구구성은 2014. 3. 3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은 2013. 1. 1.~12. 31.(1년간)임
- <표 1>은 총자산, 순자산, 주택자산,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있음
 - 2014년 가계당 평균 부동산자산은 2억4,433만원, 중위값은 1억 3,000만원이었으며, 총부채의 평균값이 5,994만원, 중위값은 1,000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계 평균 순자산은 2억7,370만원이고, 중위값은 1억5,453만원임
 - 평균을 중위값으로 나눈 비율은 모두 1보다 커서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비대칭 분포임을 의미
 -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평균-중위값 비율은 1.2임에 반하여 순자산은 1.8로 비대칭성이 더 크며, 그 비율이 부동산자산은 1.9, 그리고 금융자산은 2.0에 이르고 있음
 - 총자산이 전무한 가구는 0.04%, 금융자산이 전무한 가구는 0.08%, 부동산자산이 전무한 가구는 13.04%이었으며, 전체 가구 중 64.5%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순자산이 0이거나 음수인 가구 비율은 2.95%이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이 0이하인 비율은 각각 0.12% 및 0.59%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자산 및 소득의 산술평균과 중위수

(단위: 만원, %)

	총자산	금융 자산	부동산자산	총부채	순자산	경상 소득	가처분소득
평균(만원)	33,364	8,931	24,433	5,994	27,370	4,676	3,833
중위값(만원)	19,360	4,553	13,000	1,000	15,453	3,800	3,137
평균/중위값	1.7	2.0	1.9	6.0	1.8	1.2	1.2
0(%)	0.04	0.08	13.04	36.52	0.04	0.12	0.01
음수(%)	0.00	0.00	0.00	0.00	2.91	0.00	0.58

주: 평균과 중위수는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총 가구수는 17,863임.
 자료: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로부터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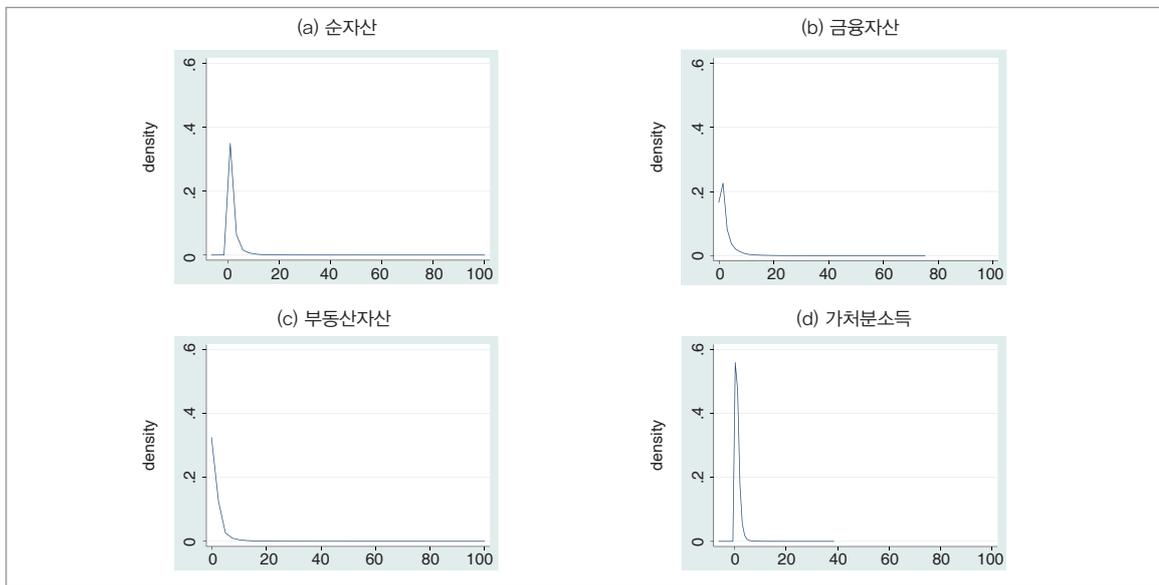
■ [그림 1]은 주요 변수들을 중위수로 나누어 표준화 한 다음 평활화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인데, 이로부터 자산과 소득 관련 변수의 불평등도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음

○가처분소득의 경우 최대값이 40 정도이고, 최빈값은 5 부근에서 나타남

○순자산과 부동산자산은 최대값이 100을 넘고, 최빈값은 0 부근에서 나타남

- 순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소득에 비하여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1] 자산유형별 히스토그램



주: 가로축은 중위값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 〈표 2〉는 자산과 소득의 그룹별 점유율을 정리한 것인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0이고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14로 나타나서 자산이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포함을 의미함

○금융자산의 경우 상위 20%가 63.8%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20%에서는 0.8%, 그리고 차상위 20% 그룹에서 4.5%를 가지고 있음(금융자산의 지니계수는 0.5839)

○부동산 자산의 경우 상위 20%에서 66.1%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40% 그룹에서는 2.2%를 보유하는데 그치고 있음 (부동산자산의 지니계수는 0.6608)

- 총부채는 상위 20% 그룹에서 79.0%를 보유한 반면, 하위 60%에서의 점유율은 5%에 미달함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로 인하여 부동산자산이 많은 상위그룹에서 부채 규모 또한 크기 때문으로 보임
- 가구원수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OECD 균등화 척도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불평등은 가구기준으로 계산한 것에 비하여 좀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840, 가구기준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임 (변수 c97 기준)
 - 이 값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분배불평등을 나타내는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 0.302 (2013년 기준) 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가계자산 및 소득 분포의 특징 (단위: %, p)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총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점유율(%)							
제1분위	1.2	0.8	0.0	0.0	0.6	3.5	3.5
제2분위	5.6	4.5	2.2	0.3	5.3	9.8	10.0
제3분위	11.7	10.4	10.5	4.0	11.5	16.1	16.4
제4분위	21.2	20.5	21.2	16.7	21.2	24.1	24.2
제5분위	60.3	63.8	66.1	79.0	61.5	46.5	46.0
하위 40%	6.8	5.3	2.2	0.1	5.9	13.5	13.4
중간 50%	50.5	49.3	50.0	40.2	50.4	57.1	57.4
상위 10%	42.8	45.3	47.9	59.7	43.7	29.4	29.1
상위 10~5%	13.3	14.6	14.1	17.5	13.3	11.0	10.8
상위 5~1%	17.8	19.0	19.7	24.8	18.0	11.8	11.7
상위 1%	11.7	11.8	14.0	17.4	12.4	6.6	6.6
불평등지수							
Gini 계수	0.5839	0.6186	0.6608	0.7714	0.6014	0.4281	0.4259
변동계수(CV)	1.6702	1.6563	1.9897	2.4150	1.7699	0.9878	1.0142
Gini (+값만 사용)	0.5837	0.6181	0.6077	0.6523	0.5839	0.4272	0.4200
GE(0)	0.8699	1.0131	1.0899	1.1175	0.8497	0.3725	0.3574
GE(1)	0.6611	0.7288	0.7349	0.8332	0.6676	0.3261	0.3182
GE(2)	1.3939	1.3696	1.6439	1.7459	1.4916	0.4863	0.5036
p90/p10	41.602	75.460	124.20	104.11	38.300	11.356	10.403
p90/p50	3.807	4.716	3.764	5.726	3.825	2.403	2.355
p10/p50	0.092	0.063	0.030	0.055	0.100	0.212	0.226
p75/p25	5.731	7.091	7.975	9.444	5.508	3.203	3.133

주: 각 변수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다음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며, 총 가구수는 17,863임.
 자료: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로부터 계산함.

- 자산분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불평등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life-cycle에 따른 저축을 주목하고 있음 (Davies and Shorrocks, 2000)
 -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소비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Modigliani and Brumberg(1954)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 근로기간 동안 은퇴 이후 시기의 소비를 위하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연령’ 이 현실에서 관찰된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표 3>에는 연령-자산 프로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금융자산과 소득은 45~55세에서 정점에 이르면 다음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부동산자산, 총부채, 순자산은 55~64세에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생애주기 가설에서 얻어지는 함의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자산은 정점이 60세 부근에서 나타나고, 소득은 그보다 좀 더 일찍(50세 부근) 나타나고 있음

○ 소득은 정점을 지난 뒤 급격하게 감소하여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자산은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며 정점을 기준으로 할 때 비교적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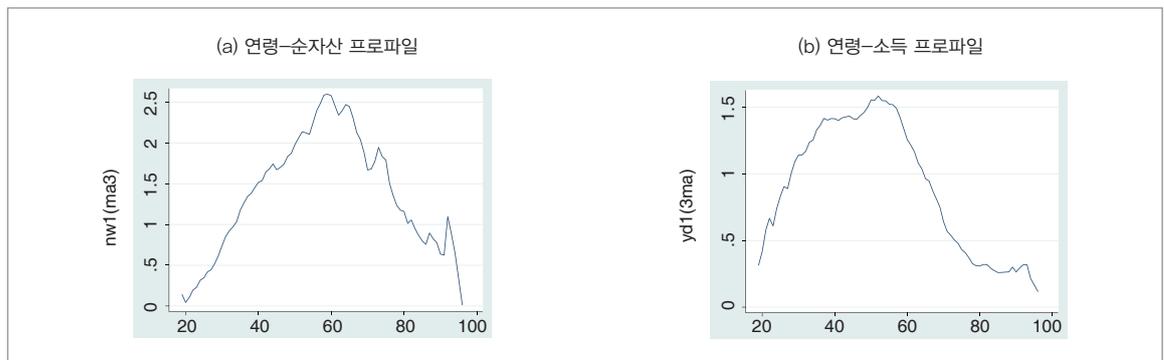
<표 3> 연령-자산 프로파일

(단위: %)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총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4세 이하	0.47	0.86	0.33	0.54	0.46	0.90	0.93
35~44세	0.89	1.11	0.81	1.08	0.85	1.16	1.15
45~54세	1.11	1.20	1.08	1.23	1.09	1.24	1.23
55~64세	1.36	1.18	1.43	1.28	1.38	1.09	1.09
65~74세	1.06	0.60	1.22	0.71	1.13	0.57	0.60
75세 이상	0.62	0.36	0.71	0.32	0.68	0.26	0.2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로부터 계산함.

[그림 2] 연령에 대한 프로파일



■ <표 4>는 순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연령대별로 분해한 결과인데, 순자산 불평등의 대부분은 그룹내 불평등에 기인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그룹간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상당함(약 20%)

○ 연령대별 순자산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은 45~54세에서 가장 높고(23.0%), 55~64세(19.5%)가 그 뒤를 이었음. 이는 은퇴 전후 시기에서 불평등이 많이 발생함을 의미함

- 경상소득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그룹간 불평등은 소득이 순자산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자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임

○ 그룹내불평등은 순자산이 소득보다 더 큰데, 동일 연령대에 있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높기 때문으로 보임

〈표 4〉 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의 요인 분해

(단위: p, %)

연령그룹	구성비 (%)	순자산		경상소득	
		불평등도 GE(0)	상대기여율 (%)	불평등도 GE(0)	상대기여율 (%)
~35세	10.2	0.5548	6.6	0.1693	4.7
35~44세	22.9	0.5829	15.7	0.2006	12.4
45~54세	26.3	0.7452	23.0	0.2704	19.2
55~64세	20.0	0.8248	19.5	0.3455	18.6
65~74세	12.5	1.0588	15.6	0.4843	16.0
75~99세	8.1	1.4892	14.1	0.4323	9.2
그룹내			94.5		80.1
그룹간			0.05		19.9
전체	100	0.8497	100	0.3725	100

주: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로부터 계산함.

4. 요약 및 시사점

- 지금까지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변수만을 이용하여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소비나 자산 또한 중요한 변수임
 - 특히 자산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평활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
- 가구를 분석단위로 할 때 자산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도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가구기준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임)
 - 상위 1% 점유율은 순자산이 12.4%인 반면 가처분소득은 6.6%임. 상위 10% 점유율은 순자산이 43.7%이고 가처분소득은 29.1%로 나타났음
 - 부동산자산, 총부채, 순자산은 55~64세에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어서 생애주기 가설에서 얻어지는 함의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자산은 정점이 60세 부근에서 나타나고, 소득은 그보다 좀 더 일찍(50세 부근) 나타나고 있음
 - 순자산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45~54세에서 가장 높고 55~64세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은퇴 전후 시기에서 불평등이 많이 발생함을 의미함
- 향후에는 불평등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 생애주기적 속성을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령구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소득과 순자산의 동시적 결정요인, 소득 및 자산 이동성에 대한 동태 분석, 자산 또는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득·소비·자산의 다차원적 불평등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

-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불평등 지표로는 지니계수와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를 들 수 있는데, 요인별 분해에는 엔트로피 지수가 더 유용함

○ 먼저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text{Gini} = \frac{1}{\mu n^2} \sum_{i=1}^N \sum_{j=1}^N w_i |y_i - y_j|$$

- 여기서 μ 는 y 의 산술평균($\mu = \frac{1}{n} \sum y_i$), y_i 와 y_j 는 i 번째 및 j 번째 가구의 소득, w_i 는 가구가중치, 그리고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며, 가구가중치의 합은 1이 됨($\sum w_i = 1$)

-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에 유용한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text{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frac{1}{N} \sum_{i=1}^N w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 GE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모든 자산이 동일하여 분배상태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 최소치 0을 가지며, 분배상태가 불평등할수록 그 값은 커짐

○ α 의 값이 작을수록 하위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며, α 값이 클수록 상위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α 값으로는 0, 1, 2를 주로 사용함

- $\alpha = 0$ 인 경우 Theil의 L index 또는 로그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이 됨

$$\text{GE}(0) = \frac{1}{N} \sum_{i=1}^N w_i \log \left(\frac{\mu}{y_i} \right)$$

- GE지수는 모그룹(population group)을 인구학적 속성 등에 따라 전체 불평등도를 그룹간(between-group) 불평등도와 그룹내(within-group)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음

$$\text{GE}(\alpha) = \sum_{k=1}^K v_k \lambda_k \text{GE}_k(\alpha) + \overline{\text{GE}}(\alpha)$$

- 여기서 $\text{GE}_k(\alpha)$ 는 그룹 k 의 불평등 척도, v_k 는 그룹 k 가 모그룹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 ($\equiv n_k/n$), λ_k 는 k 번째 그룹 평균값의 모그룹 평균값에 대한 비율($\equiv \mu_k/\mu$), $\overline{\text{GE}}(\alpha)$ 는 각 개별그룹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 그룹별 평균값을 배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모집단 불평등 척도임

- 위 식에서 좌변은 모그룹 전체 불평등도, 우변의 첫째 항은 개별 그룹내 불평등도의 가중평균, 그리고 우변의 둘째 항은 그룹간 불평등도를 각각 나타냄

집필자 | 남상호(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 044-287-8109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